

5월 20일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을 신문지상을 통해 알다.

5월 28일

의학교육학회 전라도 여수 참석

본원에서의 환자 이송 문의가 오고 있다고 병원 경영진으로부터 연락 받음.

원래 2일간의 여수 학회 참석 예정이었으나 하루만 있고 다음날 병원으로부터의 호출을 받음

내일 이와 관련하여 긴급 병원 회의 소집하였다고 함.

5월 29일

명지병원 첫 메르스 환자 입원 평택 보건소 차량으로 병원으로 이송음.

차마 근처에 갈수가 없었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과정에 포함되기가 싫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 그리고 응급센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순한 감염관련 환자로 생각하였다.

갑작스럽게 문자로 이사장님이 오후 5시경 잠시 병동으로 올라오라고 한다. 그것도 격리병동으로 .

옆에 있던 호흡기내과장과 같이 그리고 김현수 교수도 불러서 같이 조심스럽게 마스크와 장갑을 쓰고 올라갔다.

병동에 올라가니 이사장님이 수술복과 마스크를 쓰고 간호 스테이션에 앉아 있었으며, 간호부장님, 간호과장님, 이꽃실 교수가 있었다.

왠지 숨쉬기도 싫었고 근처에 앉아있기도 싫었으나 어쩔 수 없이 멀리서 계속 지켜보고 몇마디 말을 하였다. 간신히 환자의 가슴사진을 보았다 .단순 폐렴 환자 사진이었다. 또 다른 환자는 폐렴의 증거는 없었다.

다행히 이사장님, 김현수교수, 박상준 교수 그리고 나 뒤늦게 저녁식사를 하러 열심히 손씻고 병원 밖 고기집으로 갔다. 이사장님은 계속 어디론가 전화하면서 앞으로의 벌어질 일에 대한 상황 설명을 계속 하였다.

주된 내용은 메르스 관련하여 더 이상의 확산은 없을 것이며 길어야 1주일내로 끝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으로 봐서 사망자는 한명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특히 우리병원은 사망률 제로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고 함.

뒤늦게 김세철 병원장님이 학회일정으로 저녁 11시경 합류하면서 이사장님, 박상준 교수, 김인병, 김현수 교수 그리고 병원장님 다시 E5 병동으로 가서 환자 상태 확인 후 근무자 격려 후 퇴근하였다. 이때 까지도 나는 단순 감염환자의 치료 수준으로 생각하였다.

5월 30일

메르스 관련 운영진 그룹 채팅방이 개설되었다.

입원 환자 별 특이 소견 없음을 확인하고 토요일 오전에 다시 이사장, 간호부장, 홍혜경 팀장, 이영수 팀장, 그리고 나 , 중증외상센터에 간이 의자 가져다 회의를 하였다. 이사장님 다시 자신감 있게 더 이상의 확산은 없고 1주일 내로 종식되고 사망자는 제로다.를 확신하였다. 병원 외부에

진료텐트를 설치 한다는 소식을 들어 명지병원도 응급실 외부에 진료 텐트 설치를 건의하였다.

5.31 일요일

환자 2명 안정적임을 보고함.

병원 질병관리본부에 개인보호물품 부족에 의한 추가 요청 level C 로

경기도, 질본 계속 환자 추가 입원 여부에 대한 문의 옴. 본원의 contact point는 경영관리실 팀장과 홍혜경 감염관리팀장으로 연락 오고 있음.

병원장님 : 경기도 보건정책과는 공기전염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인이 믿지 않고 있고 본 병원은 환자들의 기피 대상 병원이 되고 입원환자의 이탈 가능성 높음. 공무원들은 민간 병원의 피해 규모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여의도 성모병원의 피해 규모가 엄청나다.

외부적

1. 중국에 유출된 환자에 대하여 중국 정부에 감사의 말 전함.
2. 메르스 병원 임시 폐쇄 환자 시설 격리 조치 감행

언론 매체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경기도에서 공문과 정보가 제공되기 시작함.

메르스 감염 예방 수칙에 대한 공문과 정보가 나오기 시작함.

1. 경기도지사 수신으로 mers 대응 지역 거점병원 가동 준비 철저에 대한 답신 발송

한림대 이재갑 교수 왈 : 벤트환자 아니라면 2 m 간격으로 진료가능하다고 함. 다만 벤트 환자는 음압병상이나 2m 간격의 창문을 통한 환자 가능 1인실 변경하여야 한다고 함.

경기도 관계자 "메르스 관련 격리자를 공기전파 가능성을 배제하고 민간병원에 배치하려는 의도 보임

2. 문형표 복지부장관 메르스 2차 감염 방지 국가 역량 집중 기사화 대한의사협회에서 보건의약단체 간담회 자료 배포됨

- 3차 감염을 통한 확산 방지 위해 전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함. 11시 민간 합동 브리핑 에서 앞으로 1주일간이 메르스 확산이나 전쟁이나 기로에 있다라고 판단한다. 20일 처음으로 메르스환자 발견된 이후 15명 늘어남. 메르스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최초환자에 대한 접촉자 그룹의 누락 등에 대한 사과. 복지부는 1환자의 확진 판정 후 환자에 대한 역학 조사 시행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시행함. 정부는 추가적인 확산 방지에 최선을 하고 있다.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할 것이다. 특정병원에 대한 휴원조치와 입원환자 전원 격리조치, 철저한 모니터링.

첫째: 감염학회, 진단학회로 구성된 민관 합동 대책반 출범하여 총괄적인 대응팀 구성

둘째 : 철저한 역학 조사 발생 병원에 대하여, 국제적인 공조

셋째:감염자 치료에 최선 자택 격리자에 대한 지원책

국민여러분의 안내 : 손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철저히 당부

메르스 초기 증상 기침 발열 메르스 핫라인 지역 보건소 등 신고 당부 그리고 국민 안심시킴 치료가 가능함을 강조함

3. 메르스 확산에 대해 당국 초비상 한림대 염종식 교수

1. 진단 지연

2. 단순 접촉자와 밀접 접촉자 확인 상태가 안되역학조사의 실패였다. 특히 밀접접촉자에

대한 격리가 이루어지지 못함. 파악이 안됨

3. 자택 격리의 실패-중국 출국사례

4. 환자의 자체 이동 계속적으로 환자의 타병원 이동 발생

→ 메르스관리의 실패로 지적됨. 결국 현장 보건당국의 전문성 부족과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가 지속됨

5. 비말감염과 접촉 감염을 설명함. 의사들의 가운, 청진기 등의 문제점 공유함.

→ 3차 감염의 우려에 대하여 계속 경고함.

6.1

계속 근처병원 여의도 성모병원과 수원의 성빈센트 병원, 아주대병원 평택성모병원에 대한 소문이 계속 전파되고 있다. 특히 응급실 폐쇄 및 의료진 격리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였다.

모든 외래와 응급실 내원 환자들의 마스크 착용 권장

현장에서 다음날부터 마스크 지급하기로,

병원 안내문 작성

질병본부로 병원 에볼라 대응 관련 지급 물품

폐기물 처리 새벽 6시경 운반하여 가급적 사람이 보지 않도록 주의 요함.

경기도 공문 : 중동 호흡기 증후군 대응 지역별 거점병원 가동 준비 철저 -복지부 공중보건위기 대응과 1102 (2015.5.30) 격리 병동 준비 및 즉시 이용하도록 요청함. 비상 가동 체계 유지, 지역별 거점병원 체계, 점검대상 17개소→ 병원내에서는 중환자실 격리병상 이용 불가함을 통보함.

질본은 자기격리 시설격리 검토한다는데 복지부는 거점병원 카드 사용함.

→ 시설팀장 본원 중환자 격리실 운영 안됨을 확인함. 음압은 되나 완전 구획이 안되어 음압 유지가 불가능함. 2.5 파스칼 유지가 안됨을 확인함.

확진자의 추적 PCR 검사에 대한 검토 요청 - 답변이 없음 - 질본 호흡기 바이러스과에서 2~ 4일 확인 답변

검체 냉장보관 보건소 질본 흐름. 따라서 본원에서는 감염관리실로 연결

보건소와 확진 환자 검체 시간 교류함. 월, 목으로

폐기물 처리시 보호복에 대한 문의- 우주복으로 하기로 - 폐기물 운반 팀 구성함. 레벨 D 착용 하기로함.

시설팀장님 level D에 대한 문의 함.

폐기물 처리시 전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하기로 함.

스테이션 폐기물은 기존 미화원 활용 폐기하기로 함.

6.2

병원 인증평가 첫째날이다.

중환자실 회진때 혹시나 메르스환자가 중환자실에 오면 어떻게 해야하나? 라는 생각을 해본다.

인증 평가 첫째 날이라 온 의료진 및 간호직이 분주히 움직인다.

환자가 응급실에 많이 줄었다. 어제부터 환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 많은 병원 사람들이 인증평가 때 일부러 타병원은 환자를 줄이는 방법을 쓰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환자가 줄어서 좋다는 말까진 한다.

메르스 운영진 카톡에 홍보팀장 합류 결정을 결정하였다.

회의상 세브란스병원 선별 진료실 설치 사진 공유함.

중앙대 병원 선별치료실, 메르스 환자 안내문과 발열 확인 데스크 설치 공지함.: 발열, 기침, 호흡 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이곳에서 내원전 체크 바랍니다.

입원 4일째 환자 안정적임을 보고함.

일산백병원 2개 텐트 설치 공유, 진료와 스크리닝 개념으로

드디어 본원 응급실 외부에 재난용 텐트와 간단한 시설 (조명시설, 바닥 매트 설치를 완료하였다. 밤 22시)

6.3

외부 텐트를 설치하였으나 실용적인 사용을 하지 못하였고 외부 안내문과 텐트내부에 책상, 전화를 설치함.

이용방법으로 환자 본인이 메르스 의심이 된다면 이곳으로 와서 전화하세요. 정도의 운영을 하기 시작함.

일본에서 level D 보호복 지급하기로 함. Level C 요청하였으나 일본에서 자체 예산으로 구매하려고 함. - 2일정도 쓸 분량정도 있다고 함. -올해 예산으로 쓰라고 함. 올해 예산으로 시설 유지보수와 교육으로 6천만원 지급되어있음.

6.4

확진 환자 호전중임을 보고함.

추가 확진 환자 내원함. 3번, 4번

고양 시장 주최 대형병원장 회의 개최한다고 공지함.

2일전 나간 환자 검사상 음성으로 나옴.

물품관련 핫라인 번호 공지함. 감염학회에서 확진자 진료병원에

6.5

일종의 헤프닝이 발생하였다.

70세 남자 환자 급성 폐렴으로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급속히 폐렴이 진행되었다. 내원 1~2 시간만에 상태가 나빠졌다. 환자 중환자실 입원 권하였으나 환자보호자 ○○○병원으로 전원을 원하였다. 평상시 하던 형태로 ○○○병원으로 전원을 하였다. 다음날 우연히 ○○○병원 의료진과 통화 중 어제 전원간 환자에 대한 의견을 나누던 중 메르스가 혹시 아닐까? 라는 대화를 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병원 측에서는 난리가 난 것이다. 아무런 대비 없이 중환자실에 입원을 한 상태로 병원장부터 해서, 보건소까지 확인하기 위해 난리가 아니었다. 한창 메르스 환자 전원이 문제가 되었던 시기이다. 검사결과가 나오기 까지 어떤 활동도 할 수 가 없었다. 다행히 밤늦게 음성 판정이 나와서 다행이지 고양시가 발각 뒤집힐 뻔하였다.

병원 회의상

경기도청으로부터 N95 500개 지원받음

일본으로 level D 1040개, 고글 1000개, 덧신 1050, 장갑 2000, N95 960 – 참고에 보관하기로 함.

확진자 해제 기준과 입원 확진 환자 해제기준 3.2 판, 밀접접촉자 입원 해제 기준 공유함.

E-ICU 환자 검체 나감 -음압 확인함.

다음주부터 SCL 검사 나감을 확인 요청함. 심평원에 코드 확인하고 심사팀의 협조 요청
타과 환자에서 PCR 검사 나감을 감염관리실 통계로 확인함.

PCR 검사가 타과에서 나감을 제한하기로함.

OCS 에 검사 기준과 신고 기준 설치함.

6/5자로 중증폐렴환자 검사를 질본에서 실시하기로함.

메르스 바르게 알고 대처하기 고양시 보건소 발행 안내문 발송되어 음

폐렴 전수 조사관련하여 회의 공지함. 호흡기 내과, 전산팀, 의료정보팀, 진검, 심사팀, 응급실, 간
호부, 소아과

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 응급실 중환자실 출입통제 선별 체크리스트 작성하기로 함.

경기도 공문 : 경기도 격리병상 운영 관련 격리병상 운영 20개 병원장 회의 참석 요청 공문 6/7
16시.

41명 발생, 평택 20, 오산 2 안성 2 성남 분당 1, 서울2, 대전 3, 충남 6, 미상 5

사망자 4

주요조치사항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신속한 검사실시

의심환자 신고 접수 및 후송조치

방역소독물품 배부

경기도 메르스 대책본부 상황실 확대 운영

확진환자 접촉자 자택 격리 및 능동 모니터링 14일간

중증폐렴 감시체계 참여 요청 공문

중환자실 결과 음성으로

뉴스타파에 명지병원 메르스병원으로 알려짐.

6.6. 현충일 쉬는 날

중환자실 보호자 통제에 대한 환자 보호자에게 09:00 문자발송

: 원칙적 금지 단, 부득이한경우에 한하여 체크리스트 작성한 보호자에 한해 1인 1실

검체보고시간 : 확진환자 오송으로 48시간, 일반폐렴환자 경기도 의정부 보환연으로 당일 결과보
고

Cctv 모니터 큰것으로

중증응급센터 내원환자 입실 후 소독 방법 문의- 총무팀에서

시설팀 : 격리병상 운영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홍보문건 만들

이사장님 경기도등의 외부 활동

6.7

○○일보 기자 본원 방문하여 취재하기로 함.

전 직원에게 정확한 현황을 알리기로 함.

“ 메르스 환자 입원 사실과 국가지정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진의 사명과 병원의 정책을 신뢰해주시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병원장 명의로 메르스 치료 병원 명 24개 병원 명단이 공개가 되어버렸다.

본원이 오염병원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일단 보류함. 원래 병원 자체적으로 밝히기로 한 사실을 일단 보류하기로 함.

메르스 권역 거점/지역거점 2단계로 추진 중이나 불가능하고 지역거점 20개로 경기도와 상의 중.

○○○○병원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듯 하다. 이사장님 왈 : ○○○○병원 스크리닝하시고 응급실 진료체계 강화 당부 → ○○○○병원 파문이 클것으로 생각된다고 함.

보건소에서 의심환자 선별진료실로 데리고 옴. 자가 격리후 보건소 직원이 자택방문 후 검체 채취하기로 함.

6.8

회의록 슬라이드 참조

메르스 관련 실무 협의회에서 응급센터 및 병원 환자 흐름도 작성함.

응급실 출입구에서 보안에 의해 check-list 작성 후 텐트 격리실 - 7117 전화 후 의사 상담 흐름으로. 응급센터 선별 체크 리스트 작성함. 중환자실 내원 보호자 통제 안내문 및 중환자실 checklist에 대한 회의함.

6.9

실무진 토의 내용

- 격리실 : 음압격리실 4인 차있고
- 일반 격리실 20개는 사용 불가
- 중환자실 : PCR 양성 환자 불가능함.
- 검사결과 불명인 폐렴의 경우 ICU 환자 - 중증외상센터 입실함.
- 음성 폐렴환자 1인실 : 본인 부담으로
- 의료인력
 1. 간호인력은 응급센터 인력 활용
 2. 의료인력 : 응급의학과, 내과 인력
 3. 중앙 메인으로 오픈 보류.

6.10

전체적으로 명지병원 메르스 관련 회의 및 대처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날이다.

선별진료실 운영 관련하여 병원 차원에서

실무회의

- 조직체계 정비 : 간사로 이장현 팀장.
- 회의 정례화와 회의록 정리
 1. 전날 회의 결과
 2. 환자 내원 현황 (메르스 관련 한정 외래, 응급실, 입원 포함)
 3. 물품 및 시설 변화
 4. 메르스 최신 정보 현황

5. 기타

- 소아과 환자 흐름 : 소아 만 15세 제외한다. (참조 : slide 15번)
- 의료진 근무표 작성 (참조 : slide 16번)
- 내용 전체 교수 및 의료진 공지
- 소아과 관련 회의 내용 폐렴으로 입원하는 소아는 입원하더라도 PCR을 못한다.
- 폐렴의 경우: 1인실 입실 → 원무과 요청사항 : 입원장에 1인실에서 48시간 관찰로 표시하기
- 일본 : 입원한 경우에도 원인불명의 폐렴 (J189) 팝업. 치료가 안된 폐렴인 경우만 검사가 가능함.
- 단순히 PCR 검사를 원하는 경우는 안 된다.
- 소아 선별진료실은 운영 안한다.
- 의료진 근무표 작성 : 응급의학과 . 호흡기내과 (내과) 참여하는 스케줄로 선별진료실 운영에 대한 스케줄
- PCR 검사 관련 (소아) : 노출환자의 경우 1인실 입원의 흐름으로.
- 응급실 통해서 폐렴 입원하는 경우 PCR 검사를 시행한다. 음성이 나오면 1인실로 입원한다. 입원 후 48시간 이후에 PCR 검사 시행 여부를 주치의가 결정한다.
- 폐렴의 경우: 1인실 입실 → 원무과 요청사항 : 입원장에 1인실에서 48시간 관찰로 표시하기
- 성인만 해당 (> 만 15세 이상)
- 외래에서 PCR 시행은 안된다. PCR 시행 시는 선별 검사실에서 규정에 맞게 시행한다. PCR 시행 후 입원 환자는 1인실로 입원한다.
- 기타 토의 사항
- 검체 채취 및 결과 보고시간
 - 1. 채취 시간 : 월 ~ 금 10시, 14시, 21시, 주말 10시, 21시
 - 2. 결과 보고시간 : 오전 검체는 당일 18시, 오후 검체는 익일 9시.
-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
 - 1. 선별진료실 운영에서 상담만 시행시는 산정 안함.
 - 2. 처치 또는 약 처방 : 관리료 산정함.
- 입원 환자 면회도 제한 한다. 환자 1인당 1인 면회, checklist 마련, → 들어간 시간과 나간 시간을 같이 기재가 필요함.
 - 1. 시행 방향 - 병동 간호팀에서 교육 및 홍보하는 수준. 홍보 공지는 병동팀장의 전달. 2. 보호자 문자 발송 시행
- 회의 주요사항을 문자/ 메일로 교수들에게 공지한다.
- 참석자 정리 : 필수 참석자 / 추가 참석자
- 시설 변화 : 화장실 냄새 문제 해결, 모기 벌레 문제, 청소 관련해서
- 어제 운영 중 문제 시계 추가 설치 필요.
- CCTV 문제, 검체 운반에 따른 제반 문제.
- 정례화되는 시간 : 13시 E관 7층에서

보건소에서 검체 이송 하지 않기로 함.

민간 업체에 보내기로 하고 병원 계약 개별화함.

○○○○병원 발 환자 유입에 대한 강화

선별진료실 소독에 대한 강화 -총무팀 하기로 함.

기존의 안내문을 선별진료실 안내로 다시 수정 하기로함. 기존의 안내문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내원하신 분은 원내로 오시지 말고 응급원무팀으로 이자리에서전화해 주세요.를 수정하기로함. 031-810-5182 → 고열과 증상 기침, 호흡곤란 위와 같은 증상으로 본원 내원하신 분은 응급센터 앞의 선별진료실을 이용하기기 바랍니다. 로

1차 환자 퇴원함.

회의 자료 전체 교수들에게 공지 하기로함.

모든 폐렴환자 메르스 검사 시행 후 입원 초기 일인실 사용하는 흐름으로 정해짐.

검체 보관은 진검 냉장고에서 하고 수탁업체 씨젠으로 변경 수거시간과 결과 보고 시간에 대한 공지 하기로 함.

메르스 대책회의 매일 1시에 시행하기로 함.

병원 외부에서 모든 출입자 체온 시스템 검토하기로함.

보호자 출입자 관리 시스템 검토

체온계 구입하기로함. 10대 + 고막체온계 병용하여 사용하기로 함.

정부 각지역별로 메르스 집중 치료기관을 지정하기로함. 보라매병원,, 충남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단국대병원 등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삼성병원 이송환자로 인한 메르스 의심환자 내원을 보도함.

요양병원으로의 접근을 막는 방법 강구 하기로 함.

2명의 환자 음성 결과

이비인후과 출입문 막고 원무팀 현관쪽에서 체온 측정하고 진료협력센터 비치함

2층 막고 1층에서 엘리베이터 앞 설치 - 메르스 감염예방을 위해 체온 측정 하겠습니다. 하는 안내에정임.

체온 측정 중입니다. 하는 안내문 설치 배너로 설치하기로 함.

직원 및 환자를 대상으로 동영상 홍보 검토함.

내일부터 주출입구 통제하면서 체온 측정하기로 함.

추가 확진 환자 도착 하기로 함.

안심병원 병협에서 신청 받기로 함. 6/10 까지 신청서 제출 하기로 함.

6.11 ~ 6.17

회의록 참조.

6.18

확진 환자 퇴원함.

메르스 회의에 보건소장 및 관계자 참여로 같이 문제 상의 하기로 함.

보건소에서 수박 받음

체온계 정확성에 대하여 재검 신청함. 적외선 체온계와 고막 체온계 병용하기로 함.

6.19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공문 수신함. 강동경희대병원 투석실 환자 내원시 강동경희대로 바로 전원 조치해주길 당부하는 공문 접수함.

의료진을 믿어달라 라는 의미의 인터넷 글 화제

경기도 보건의료인의 다짐 참석을 위한 공문. : 민관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병,의원, 약국 통합하는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한 네트워크 다짐대회를 경기도지사 주관으로 의사회, 약사회 병원협회, 간호사회가같이 한다.

아침부터 선별진료실 진료를 하였다.

전날의 음성 결과자들에게 전화하고

모두들 소견서 받으러 오라고 함.

너무나 좋아한다. 그리고 얼마나 이런 말들을 기다렸을 까

12시 20분에 메르스 회의 시작

회의 내용

1시에 임명장 수여식이나 난 참석 안함. 그 대신에 선별진료실에서 진료함.

전날의 선별 진료실이 풀린 상태에서 다시금 비워놓을 수 없는 의미를 전달하고자함.

4시에 다시 안창혁 선생으로부터 인계 받아 선별진료실 진료함.

6..20

오늘은 토요일 아침 늦게 일어났다.

오늘의 계획은 운동 연습하면서 머리 깎고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싶었다.

아침 핸드폰에 7시35분 덕양구보건소장으로부터 전화가 와 있었다.

다시 원무팀장으로부터의 전화. 갑자기 불길한 예감..

입원환자가 격리대상자라서 ○○병원으로 어제 전원 하였다는 내용

아침 식사 중에 밥을 먹질 못하고 병원으로 감

응급실로 가니 어쩐지 아무도 보이질 않는다.

신규 간호사 혼자 환자 옆에서.

왈 : CPR 을 중증진료실에서 한다고 한다. 선별진료실에서 환자가 40분을 기다린다고 전화와서 선별진료실에서 환자 봄

휴게실에서 부원장님과 대화 중 아래 식당에서 점심.

2시에 회의

보건소장 이하 여러명의 보건소 관계자 참여, 부원장 진료 행정, 간호과장 김미경, 심사팀장, 기획주임, 나 감염실장 팀장, 원무팀장. 시설팀장

문제의 ○○병원 환자. 선별진료실 내원 6.13일, 6.16일 혈액종양내과 외래에서 입원실 없어 입원 위해 응급실 경유하여 일반다인실 병동으로 입원, 6.18 방사선 치료 위해 전용 병동 다인실로 입원함. 6.19 격리자로 밝혀져 퇴원 후 삼성병원으로 전원감.

○○병원 확진환자 137번 이송 요원과의 접촉자로 확인됨. 증상이 전혀 없었던 화자 그러나 보호자인 딸이 열이 난단다.

아이구. 이런 나의 어려움이 이제여 비로소 나타나는구나.

다행히 선별진료실의 보호구 착용으로 격리자로부터는 해방됨, 그러나 일부 능동 감시자로서의

변함. 병원에서 꼼꼼하게 해야 될 듯
응급실 식구들에게 다시 주의주고 집으로 감.
이제는 정리가 필요한 시간이 다가오는 것으로 정리 시작함.

6.21. 일요일 2015

선별진료실 근무를 하였다.

아침에 확진환자를 간호하던 박미연 간호팀장이 열이 나서 아침에 남편, 아들과 같이 선별진료실로 왔다. 본인도 당황하였지만 나 또한 당황하였다. 수일전부터 기침,가래, 고열 증상을 호소하였다. 몇일 전에 애기가 열이 난다고 해서 선별진료실로 왔었다. 다행히 목이 부어 있어서 단순 편도선염으로 치료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젠 박미연 E5병동 팀장이다. 직접 확진 환자를 본 의료진이다. 선별진료실 텐트에 격리 후 검사를 진행하였다. CCTV 로 보는 박미연 간호사는 매우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 인상이었다. 그러나 간간히 운다. 울만하다. 그러나 원칙대로 진료 프로세스를 진행하여야 한다. 결과가 6시 이후에 나온다. 그리고 일단 본원 격리병동에 입원시킬 예정이다. 다행히 음성이 나왔으나 일인 격리실로 본인이 E5 병동에 입원하게 되었다.

퇴근 무렵 다시 고양소방서에서 연락이 왔다.

○○○○병원 6.11 ~ 13일까지 입원했던 환자가 열이 난다고 연락이 왔다.

환자는 병원 안 가겠다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고 구급대원들은 모든 일이 정지되었다. 만약의 상황을 생각하여 보건소에 다시 문의하였고 보건소에서는 ○○○○병원이 6.10일까지 종료된 상태라서 기간에는 맞지 않는다고 한다. 이상 없다고 하였으나 구급대에선 신경이 쓰여 나에게 자문을 하였다. 메르스 대책본부의 사이트에서 확인하니 기간은 지난 상태이고 원무과 조회에선 없다. 다시 구급대원에게 연락 후 보건소에서 검사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나라가 온통 난리이다. 하여튼 박미연 간호사의 건투를 빈다.

이제 정리하고 집으로 가야겠다.

6.22

그린 리본 응원 게시판 운영 시작

구리 재활 병원 확진 환자로 인한 격리자 수용을 위해 파주의료원으로 이동 시작 금일 중으로 파주병원 입원 환자 100여명 내외 본원으로 이송 결정

부원장님 김인병, 원무팀장 파주병원 파견하여 내원할 환자에 대한 정리 작업 시작

중환자실 환자 2명, 입원 환자 10명 정도 본원으로 전원 됨

검사실 직원 열나서 선별진료실로 검사 후 재내원 하기로함. 메르스 검체 요원임.

저녁에

6.23

1. 파주의료원 입원환자 전원 관련

▶ 총 전원자 수 : 12명

▶ 입원과 : EM(1), OS(5), PM(4), PU(1), PY(1)명

2. 의료진 컨택범위 결정 및 1차적 검사 진행 여부 확인 : 본원 접촉자 17명이 전원 mers PCR 을

시행하여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6.25

건국대 병원이 완전 폐쇄에 들어갔고 강동 경희대 병원 응급실이 폐쇄되었다.

이제는 산발적인 끝물에 계속 양성 확진 환자가 하나 둘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해 병원은 무조건 폐쇄되고 있다. 삼성이 폐쇄된 마당에 폐쇄 진행을 못할 병원이 없는 것이다.

응급실의 선별 진료실 강화에 대한 이사장님의 호소가 눈에 띈다.

응급실이 뚫리면 병원이 폐쇄된다 하는 긴박감을 많이 느끼시는 모양이다.

나 또한 많은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느낀다. 두려움 보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신경이 곤두서고 있고 신경질 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어제 저녁은 오랜만의 야간 당직을 섰다.

별일은 없이 잘 지났고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다.

다시 한번 메르스 대응에 대한 재무장을 위한 정신적인 각오가 필요하였다.

이에 전체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 회의는 재점검을 목적으로 하였다.

1. 내원객 출입통제에 대한 보완 사항

보안직원 총원 필요

- ▶ 현재 야간 인력 5명 -> 2명 추가

환자 및 내원객 응대 멘트 매뉴얼 필요

- ▶ 제작 : 김인병 교수 -> 총무팀 교육에 활용

발열 체크 표준화

- ▶ 1차 : 적외선 체온계(이마 1cm)
- ▶ 2차 : 1차에서 37도 이상일 시, 고막 체온계로 2차 측정
-> 선별진료실 안내

2. 의료진 보호장구 착용의 건

- ▶ 중환자실에서 마스크 및 보호장구 미착용자 명단 작성
- ▶ 진료부원장님 주의 조치

3. 선별진료실 보완사항

- ▶ 선별진료실 문진 의료진 스케줄 협의 및 조정(김인병 교수)

4. 능동감시자, 격리대상자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 필요

- ▶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에 계속해서 문의(감염관리실)

5. 중환자실 환자 입실 대비 시설 수리

- ▶ 자체 수리 or 외부 A/S 등 상황 확인(시설팀)

6. ICU 내 의심환자 사망 시 절차 안내

- ▶ 1차 검사 환자 중간 사망 시, 확진자에 준하는 사망절차 진행

7. 메르스 대응 운영회의 변경

- ▶ 상황 종료시 까지 매주 월, 목 13:00/E 관 7층
- ▶ 필요시 추가 소집

8. 회의록 배포 대상 추가

- ▶ 전공의, 인턴 포함(6/25부터)

면회객 제한

▶ 기존방침 그대로 유지 (1 회 1 인/13~15 시, 17 시~19 시)

6.26

새벽에 정시영 교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아침에 되새기면서 병원으로 출근하였다.

요사이 집에 오면 거의 시체가 된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쓰러져 잔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다시 출근하고 근무한다.

새벽에 길동에 사는 35세 남자가 열이 났다. 강동성심병원 갔던 환자로 파주보건소에서 신고하여 본원 선별진료실에서 검사를 하였던 환자다.

관할 지역이 달라 경기도 덕양구 보건소에서는 서울 양천구 보건소로 이관을 하고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거기다 기소자로 경찰서에서 조차 문의가 와서 더욱 일이 꼬이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덕양구 보건소에서 양천구 보건소로 이관이 성사되어 서울의 타병원으로 이송이 되어 일단락되었던 환자이다.

중증 호흡기 질환 병동 문제로 긴급 회의를 가졌다.

현재 입원해 있는 환자가 2차 음성 판정이 나온 상황에서 급성 호흡기 질환자의 입원 병동이 없어졌다. 그렇다고 접촉자가 입원해 있는 병동인 E5에 일반 호흡기 입원 환자를 입원시킬 수는 없는 상황

회의 후 타 1인실에 입원 후 기존의 48시간 관찰 수준의 격리병동을 운영하기로 D4 의 1인실 병동 4개를 운영하기로

회의 내용

1. 급성호흡기 환자 입원 시

- D4 병동 1 인실(7/5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1 인실 입원 -> PCR -> 결과 나올때까지 48 시간 관찰-> 검사결과 확인
- 보호자 출입 통제(들어올 경우 함께 격리)
- EICU 기존대로 운영

2. 응급실 출입구 및 통로 통제

- 응급실 방문을 줄이기 위해 입구 및 통로 이용 자제
- 안내문 부착

6.27

드디어 오늘 아침 신문 및 메스컴에서 메르스에 대한 기사가 전면에서 사라졌다..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메르스 확대 운영회의가 열렸다.

이사장님, 병원장님, 부원장님을 포함한 실무진 팀장급이 모두 모였다.

주 의제는

1. 내원객 선별진료소에 대한 강화건 2. 이제는 병원이 정상화 모드로 가기 위한 전략 및 방향 설정을 공유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E5 병동의 격리병동을 훈증소독을 하면서 지금 입원해 있는 수원의료원 환자를 가능한 빨리 격리실로 이송하면서 급성 호흡기 질환 환자를 E5 병동으로 입원시키고 나머지 병동은 이제는 정상적인 모드로 전환한다.' 는 내용이다. 둘째로 '이제는 전 직원들이 메르스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에

서 이제는 정상적인 운영을 할 때라는 생각을 고취시키고 정상화 수순 즉 출구 전략으로 나가기 위한 자세를 이루어야 한다.' 는 내용이다.

추가로 초반의 수동적인 자세로 인해 내부 단속을 못한 측면이 있고 이에 대한 내부의 전략 부재로 인한 경영진의 판단 착오를 다시는 하지 말자 라는 의미다.

다행히 이사장님과 경영진에 대한 자기 반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의미를 더욱 되새기며 이를 위한 세세한 자기 반성의 백서 출간을 고려하자 이는 내가 하겠다. 이를 위한 자료를 이제는 모아 할 것이다. 이는 난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전사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